三綱行實 上
孝子

庚申

庚申

三綱行實圖序

天下之達道五而三綱居其首實經綸之大法而萬化之本源也若稽諸古帝舜愼徽五典成湯肇修人紀周家重民五教而賔興三物帝王爲治之先務可知也已宣德辛亥夏

我

主上殿下命近臣若曰三代之治皆所以明人倫也後世教化陵夷百姓不親君臣父子夫婦之大倫率皆昧於所性而常失於薄間有卓行高節不爲習俗所移而聳人觀聽者亦多予欲使取其特異者作爲圖讚頒諸中外庶

俾愚夫愚婦皆得易以觀感而興起則亦化
民成俗之一道也乃
命集賢殿副提學臣偰循掌編摩之事於是自
中國以至我東方古今書傳所載靡不蒐閱
得孝子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各百有十
人圖形於前紀實於後而幷系以詩孝子則
謹錄
太宗文皇帝所賜孝順事實之詩兼取臣高祖臣溥
所撰孝行錄中名儒李齊賢之贊其餘則令
輔臣分撰忠臣烈女之詩亦令文臣分製編
訖

賜名三綱行實圖令鑄字所鋟梓永傳爰
命臣採序其卷端臣採竊惟君親夫婦之倫忠
孝節義之道是乃降衷秉彝人人所同窮天
地之始而俱生極天地之終而罔墜不以堯
舜之仁而有餘不以桀紂之暴而不足然先
王之時五典克從民用和睦而比屋可封三
代以後治日常少而亂賊之徒接跡於世者
良由君上導養之如何耳今我
主上殿下以神聖之資盡君師之道功成治定萬
目畢張而以扶植綱常維持世道為本凡有
關於名教者無不講究商確著為彛典所以

化民於
躬行心得之餘者既極其至猶慮興起之方有
所未盡乃為此書廣布民間使無賢愚貴賤
孩童婦女皆有以樂觀而習聞披玩其圖以
想形容諷詠其詩以體情性莫不歆羨嘆慕
勸勉激勵以感發其同然之善心而盡其職
分之當為矣盖與帝王敦典敷教之義同一
揆而條理有加密焉由是民風丕變治道益
隆家盡孝順之子國皆忠藎之臣南陔白華
之什漢廣汝墳之詩將繼作於委巷之間王
化之美當無讓於二南而王業之固實永傳

於萬世後之君子盖體
宸衷服膺敬守於無窮豈不韙歟宣德七年六
月　日奉列大夫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
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　教序

三綱行實目錄

孝子

閔損單衣 魯

민손은공ᄌᆞ뎨ᄌᆞ라
일즉어미죽고아비
후취를ᄒᆞ야두아
ᄃᆞᆯ을나흐니민손의
계모ㅣ민손을믜여티
겨제아ᄃᆞᆯ모란옷시
소옴두어주고민손
으란굴품을두어주
엇더니겨울의그아
비민손으로ᄒᆞ여곰
술의줄을시키워몬
ᄒᆡ올노화ᄇᆞ린대아
비알고후쳐를내치
고져ᄒᆞ거ᄂᆞᆯ민손이
울어ᄉᆞᆯ오ᄃᆡ어미이
시면ᄒᆞᆫ아ᄃᆞᆯ이치고
어미업ᄉᆞ면세아ᄃᆞᆯ
이치우리이다ᄒᆞᆫ대

아비그말을어딜이
녀겨아나내치너게
미一도혀뉘우쳐어
엿비기더라

閔損孔子弟子早喪母父娶後妻生二子母嫉損所生子
衣綿絮衣損以蘆花絮父冬月令損御車體寒失靷父察
知之欲遣後妻損啓父曰母在一子寒母去三子單父善
其言而止 母亦感悔遂成慈母

詩 身衣蘆花不禦寒隆冬寧使一身單因將好語回嚴
父子得團圓母得安　孝哉閔損世稱賢德行由來萬
古傳繼母一朝能感悟從玆慈愛意無偏

贊 後母不慈獨厚已兒弟溫兄凍蘆絮非綿父將逐母
跪白于前母今在此一子獨寒若令母去三子俱單父
感而止孝哉閔子

ᄌᆞ로의셩은듕이오
일홈은유ㅣ니공ᄌᆞ뎨
ᄌᆞ라집이간란ᄒᆞ야
ᄂᆞ믈노쥭ᄶᅮ어먹으
며어버이ᄅᆞᆯ위ᄒᆞ야
ᄇᆡᆨ니밧긔가ᄡᆞᆯ을져
오더니어버이죽은
후의남으로초ᄯᅡ희
놀ᄉᆡ좃ᄎᆞᆫ술의일ᄇᆡᆨ
이며만죵곡식을ᄡᅡ
ᄒᆞ며자리ᄅᆞᆯ열어겹
을ᄭᆞ라안즈며솟츨
버려먹을ᄉᆡ한숨지
여닐오ᄃᆡ비록ᄂᆞ믈
쥭먹으며어버이위
ᄒᆞ여ᄡᆞᆯ을지려ᄒᆞ여
도가히엇지못ᄒᆞ리
로다공ᄌᆞㅣ들으시고

곰오ᄒᆞ되ᄌᆞ로ᄂᆞᆫ가
히할아비에힘을다
ᄒᆞ여님기고죽으매
엄아생각ᄂᆞᆫ다블스
리로다

子路姓仲名由孔子弟子事親至孝家貧食藜藿之食爲
親負米於百里之外親歿之後南遊於楚從車百乘積粟
萬鍾累裀而坐列鼎而食乃歎曰雖欲食藜藿之食爲親
負米不可得也孔子聞之曰由也可謂生事盡力死事盡
思者也

詩 家貧藜藿僅能充 負米供親困苦中 當日孔門稱盡
孝 仲由千古播高風 一朝列鼎累重裀 嘗費終能念
賤貧 生事死思雖盡孝 聖門嘉譽屬賢人

양향이ᄂᆞᆫ노나라남향고을사ᄅᆞᆷ양풍의ᄯᆞᆯ이니나히열네힌제그아비를조차밧티가곡식뷔다가아비범의게물리이니손의죠고만잠기엽는디라ᄂᆞ라드리범의목을조르쥐니범이ᄂᆞ하ᄇᆞ리니아비살아ᄂᆞᆫ디라원이듯고의ᄌᆞ와곡식을주고그집을졍문ᄒᆞ니라.

楊香南鄉縣楊豊女也隨父田間穫粟豊爲虎所噬香年甫十四手無寸刃乃搤虎頸豊因獲免太守孟肇之賜賚穀旌其門閭焉

贊 父遭虎噬憯心顙命在當時頃刻間虎頸搤持寧顧死殺令嚴父得生還　幼齡體弱氣軒昂父命能令虎不傷青史尚留名姓在至今誰不道楊香

공지나가시다가슬
픈울음소릐를들으
시고가셔보시니고
어란사람이뵈옷닙
고환도를가지고길
ᄀᆞ의셔울거늘공지
그연고를무르신대
듸답ᄒᆞ되내져머셔
글ᄇᆡ호기를됴히너
겨텬하의두로ᄃᆞᆫ니
티니여버이죽으며
남기ᄆᆞ마니이시려
ᄒᆞ여도ᄇᆞ람이그치
지아니ᄒᆞ고ᄌᆞ식이
효도ᄒᆞ려ᄒᆞ여도어
버이기ᄃᆞ리지아니
ᄒᆞᄂᆞ니가고도라오
지아니ᄒᆞ제ᄂᆞᆫ나히

며죽으매못밋쳐가
리ᄂᆞ이버이니내여
긔셔하직ᄒᆞ쟈이다
ᄒᆞ고셔셔죽도록울
어명이진ᄒᆞ니이예
공ᄌᆞ뎨ᄌᆞ도라가그
어버이를효양ᄒᆞᄂᆞᆫ사
ᄅᆞᆷ이열세히러라

孔子出行聞有哭聲甚悲至則皐魚也被褐擁鎌哭於路左孔子下車而問其故對曰吾少好學周流天下而吾親死矣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往而不可返者年也逝而不可追者親也吾於是辭矣立哭而死於是孔子之門人歸養親者一十三人

詩 皐魚嗚咽自訟自傷親不待養知何從蒼泣盡眼枯立死路傍嗟嗟皐行見重素王

의허락ᄒᆞ엿ᄂᆞᆫ지다
ᄂᆞᆷ의노모를치다가
나죵내못ᄒᆞ고ᄂᆞᆷ의
게그리ᄒᆞ마ᄒᆞ고허
락ᄒᆞ엿다가곳치면
엇지세샹의ᄃᆞ니
리오ᄒᆞ고스ᄉᆞ로죽
으려ᄒᆞ니부미두려
감히그ᄯᅳᆺ을앗지못
ᄒᆞ니싀어미효양ᄒᆞ
기를스믈여ᄃᆞᆲᄒᆡ를
ᄒᆞ다가죽거ᄂᆞᆯ밧과
집을ᄑᆞᆯ아뭇으니
일홈을효부라ᄒᆞ니
라

陳孝婦年十六而嫁其夫當戍且行屬曰我生死未可知
幸有老母無他兄弟備養吾不還汝肯養吾母乎婦曰諾
夫果死不還婦養姑不衰終無嫁意其父母將取而嫁之
婦曰夫去時屬妾以養老母妾既許諾養人老母而不能
卒許人以諾而不能信將何以立於世欲自殺父母懼而
不敢嫁養姑二十八年姑終盡賣田宅葬之號曰孝婦
頌良人遠征屬我老母身歿不歸言在敢負之死靡他
養尊葬尊萬世稱之曰陳孝婦

강혁이 한ᄯᅢ에 님치
고을 사람이니 어려서
아비를 일코 어미를 돌
아보고 잇더니 난리를 만
나 어미를 업고 피란ᄒᆞ
와 나물을 키고 길ᄒᆞ늘
은 곡식을 주어 어미를
봉양ᄒᆞᆯᄉᆡ 잇ᄯᅡ감 도적
을 만나 겁박ᄒᆞ여 잡아
갈여ᄒᆞ면 혁이 울며 비
로되 늙은 어미 이쉬라
ᄒᆞ 그 슬픈 말ᄉᆞᆷ이 사ᄅᆞᆷ
을 감동ᄒᆞ매 도적이 ᄎᆞ
마 해치 못ᄒᆞ고 도로혀
피난ᄒᆞᆯ 곳을 ᄀᆞᄅᆞ치니
인ᄒᆞ야 반리 등의 모지
다 보젼ᄒᆞ여 살아난지
라 심히 빈궁ᄒᆞ야 몸의
님은 키시 업고 발을 벗고
품을 ᄑᆞ라 어미를 공양
ᄒᆞ되 어미 몸의 가딘 거
시 부족ᄒᆞᆫ 거시 업더라

□무말의원ᄒᆞᄂᆞᆫ바ᄅᆞᆯ
ᄒᆞ어미로ᄃᆡ보리고ᄒᆡᆼ
의도라오니면양補시
예고울로ᄃᆡ어미를ᄇᆞ
ᄅᆞᆯ시혁이ᄀᆞᆫ늘근어믜
ᄂᆞᆫ술의요동치아니게
ᄒᆞ야모쇼의게메우디
아니ᄒᆞ고손으로술의
ᄅᆞᆯ稱ᄒᆞᆫ이머리ᄃᆞᆫ니
향나사ᄅᆞᆷ이일ᄏᆞᆯ아ᄃᆡ
오되강거효라ᄒᆞ더니
어미죽으매무덤겻ᄐᆡ
ᄂᆡ막ᄒᆞ고삼년이디나
되상복을벗디아니ᄒᆞ
니ᄂᆞ고온원이승연을
ᄒᆞᆷ노연은보내야상복을
벗겻ᄉᆡ니런ᄌᆞᄉᆡᄉᆡ표
취ᄒᆞ여곡식쳔퇴을주
시고민텬관원의그묘
을ᄀᆞᆫ饮조문ᄒᆞ고양과
술을주라ᄒᆞ시니라

江革臨淄人少失父遭天下亂負母逃難常采拾以爲養數遇賊或劫欲將去革輒涕泣求哀言有老母詞氣愿款有足感動人者賊不忍害或指避兵之方遂得俱全於難食窮裸跣行傭以供母周身之物莫不畢給建武末與母歸鄉里每至歲時縣當案比革以母老不欲搖動自在轅中挽車不用牛馬鄉里稱曰江巨孝母終常寢伏冢廬服竟不除郡守遣丞掾釋服元和中詔以穀千斛賜之常以八月長吏存問致羊酒

詩 至孝由來動鬼神 餘逢強暴亦全身 到頭母子俱無恙 天地終須福善人
平生行孝動朝廷 寵錫恩隆沐顯榮 青史獨稱江巨孝 古今誰復可齊名

贊 江革負母逃難其鄉遇賊陳哀賊不忍傷盡心方寺備養於傭便身何物有不畢供

薛包노 한ᄯᅢ예여남고을사ᄅᆞᆷ이니아비후쳐를취ᄒᆞ매포를믜이너겨나가라ᄒᆞ거ᄂᆞᆯ푀밤낫으로울고가지아니ᄒᆞ터니매맛고구박ᄒᆞ기예니ᄅᆞ니ᄂᆡ지못ᄒᆞ야문밧긔막을의지ᄒᆞ고이셔실족이들어와쁠에절ᄒᆞᆫ대아비노ᄒᆞ야또구튝ᄒᆞ거ᄂᆞᆯ니문밧긔막을의지ᄒᆞ고이셔아ᄎᆞᆷ낫으로들어와쁠에절ᄒᆞ기를폐티아니ᄒᆞㅣ를소히남죽이ᄒᆞ니부뫼븟그리터겨

드려오라ᄒᆞ야라부
뫼죽은후의아이져
믈을ᄂᆞᆫ화각각살기
ᄅᆞᆯ구ᄒᆞ거ᄂᆞᆯ픠말니
디아니ᄒᆞ고노비ᄂᆞᆫ
ᄂᆞᆯ근거ᄉᆞᆯ잡으며ᄀᆞᆯ
오ᄃᆡ날노더브러ᄒᆞᆫ
가지로일ᄒᆞ연디오
라니비ᄂᆞᆫ능히브리
디못ᄒᆞ리라ᄒᆞ고밧
과집은됴티아닌거
ᄉᆞᆯ가지며ᄀᆞᆯ오ᄃᆡ져
머셔브티다ᄉᆞ리던
배라됴히티기노라
ᄒᆞ고그믈은섭표파
ᄒᆞᆫ거ᄉᆞᆯ잡으며ᄀᆞᆯ오
ᄃᆡ내본ᄃᆡᄡᅳ턴거시
라몸과입의편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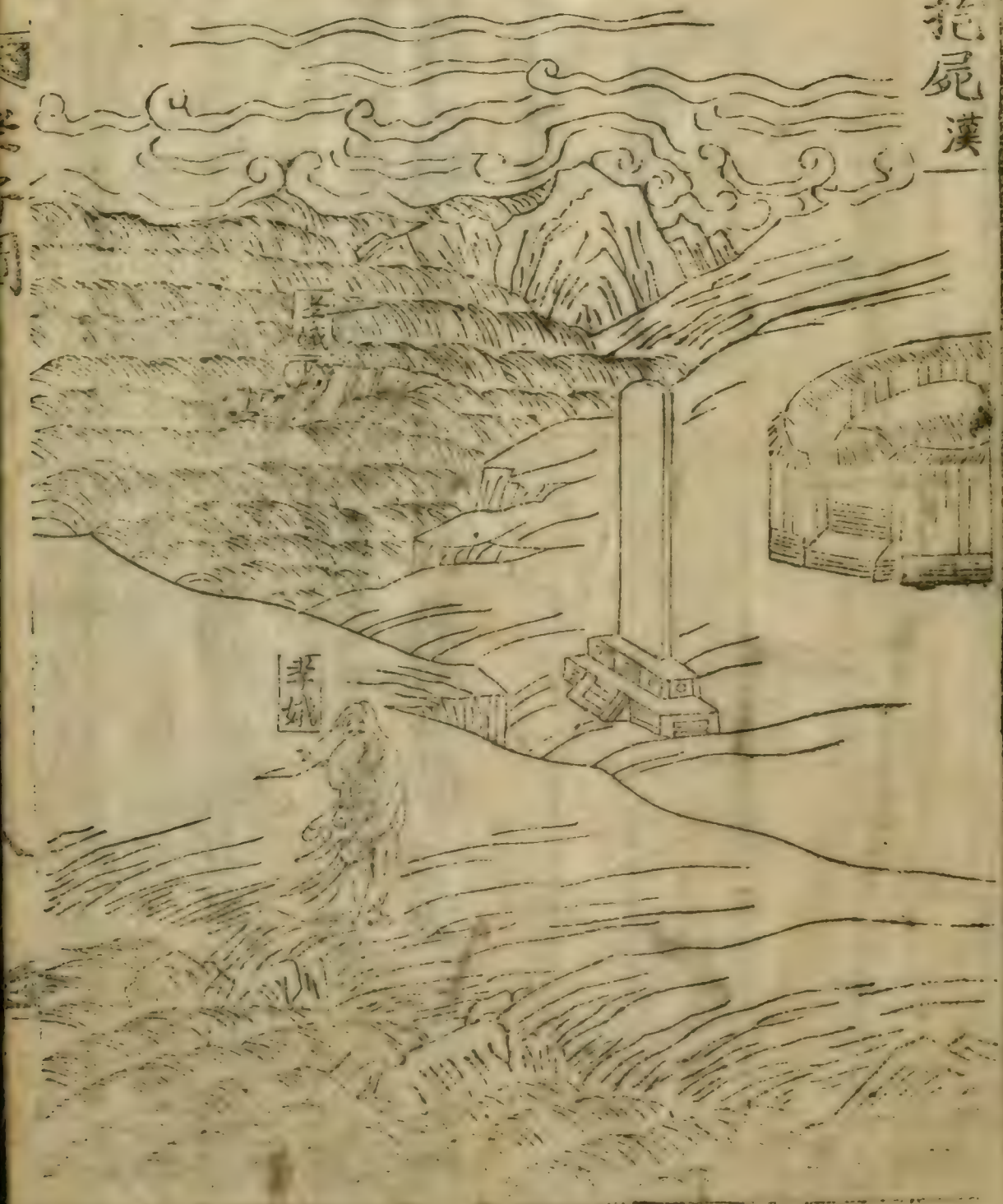
薛包汝南人父娶後妻憎包分出之包日夜號泣不去至
被毆杖不得已廬于外旦入灑掃父怒又逐之乃廬于里
門晨昏不廢歲餘父母慚而還之父母亡弟求分財異居
包不能止奴婢引老者曰與我共事久若不能使也田廬
取荒頓者曰吾少時所治意所戀也器物取朽敗者曰素所
服食身口所安也弟數破其產輒復賑給安帝徵拜侍中

詩 不得親心涕泗濡晨昏灑掃守門閭積誠感得親顔
悅父子和諧遂麽初　中分財產讓田廬孝義能全世
罕如自是佳名聞闕下侍中有命召公車

贊 父兮憎兒多因繼室兒若至誠將悔其失包也被毆
未忍遠出慚而還之終始如一

배라ᄒᆞ고가젓세니아이ᄌᆞ로가개ᄅᆞᆯ패ᄒᆞ며다시ᄂᆞᆫ화주티라효
안황뎨블러시즁벼ᄉᆞᆯ을ᄒᆞ이시다

효티조아논한쎄
회계고을사룸이
니아비조우논무
당으로셔오월오
일의강ᄀᆞ의가키
신을맛논곳슬ᄒᆞ
다가강물이탕실
ᄒᆞ야쌔져죽어그
죽엄을엇디못ᄒᆞ
너이쇄예조아의
나히스물비히라
강ᄀᆞ으로돈니며
울며밤낫으로소
리롤곳치디아니
ᄒᆞ티니열닐웬만
의믈의쌔텨죽어
아뷔죽엄을안고
믈우희쁘니ᄒᆞᆫ사

금이곳뎌몯고비
블俑우다

孝女曹娥者會稽人父盱爲巫祝漢安二年五月五日於縣江泝濤迎婆娑神值江水大發而遂溺死不得其屍娥年二十四乃沿江號哭晝夜不絶聲旬有七日遂投江而死抱父屍而出後吏民改葬樹碑焉

[詩] 孝娥姓曹父溺驚濤娥年十四晝夜哀號聲不暫停旬又七日投江抱屍經宿以出誠貫穹壤淚溢滄溟黃絹妙章萬世流芳

황향이ᄂᆞᆫ한셰사ᄅᆞᆷ
이니나히구셰예어
미ᄅᆞᆯ일코슬허ᄉᆡᆼ각
ᄒᆞ여거의주기의면
티못ᄒᆞ게되니향리
사ᄅᆞᆷ이다그효도ᄅᆞᆯ
일ᄏᆞᆺ더라ᄒᆞᆯ노그아
비ᄅᆞᆯ효양ᄒᆞᆯ시티름
이면벼개와자리예
붓체질ᄒᆞ야서ᄂᆞᆯ케
ᄒᆞ고겨울이면몸으
로ᄡᅥ니블을태여ᄯᅳ
ᄉᆞᄒᆞ게ᄒᆞ더니원이
나라히주문ᄒᆞ니이
후로븟터쳬상의일
ᄒᆞᆷ반다라후에벼슬
이상셔벙의닐으고
아ᄃᆞᆯ과손ᄌᆞ의닐으

르니히 현달ᄒᆞ니라

黃香年九歲失母思慕憔悴殆不免喪鄕人稱其孝獨養其父躬執勤苦夏則扇枕席冬則以身溫被太守劉護表而異之自是名聞於世後官累遷至尙書令至子瓊及孫皆貴顯

詩 黃香行孝自髫年扇枕溫衾世共傳寒暑不令親體受誠心一念出天然 江夏黃童爲異常當時已道世無雙累官直至尙書令孝感能令後嗣昌

뎡난이는한代사ᄅᆞᆷ
이니조상부모ᄒᆞ야
밋쳐공양치못ᄒᆞᆫ줄
을슬러티거남글사
겨어버의얼굴을ᄆᆞᆫ
그라두고셤기믈
산부모ᄀᆞᆺ티ᄒᆞ여도
탁의틱셤ᄒᆞ더니후
의무을사ᄅᆞᆷ당슉의
체남의취의게블니
그쳑상을보사지라
ᄒᆞ거ᄂᆞᆯ난의체셔러
쟌자목상을빌녀쥬
니목상이도치아니
ᄒᆞ여ᄒᆞᆫ는키쳑이이
시니ᄂᆞᆺᄎᆞᆯ이슐을취
ᄒᆞ여목상을듬짓고
막그로그머리를치
티니난이도라와보
니목상이질히여안
치아니ᄒᆞ여ᄒᆞ는빗

치옷ᄒᆞ니난그쥐ᄃᆞ려
믈른대그채질상ᄒᆞᆯ
닐으니난이분ᄒᆞ야
댱슉이ᄅᆞᆯ단대댱슉
이표ᄅᆞᆯ의가쥐고ᄒᆞ
샤ᄅᆞᆷ이ᄅᆞᆯ잡아가나
보이목쟝의가하직
ᄒᆞᆯ표갈서목쟝이ᄡᆞᆯ
을보고눈믈을흘리
니원이그말을듯고
지극ᄒᆞᆫ효힝이신명
의통ᄒᆞᆫ줄을알음
디예비거ᄂᆞᆯ조뎡이주
문ᄒᆞ니뎐지조셔ᄒᆞ
샤그얼굴을그려오
라오쉬보기니라

丁蘭河內人少喪考妣不及供養乃刻木為親形像事之如生朝夕定省後鄰人張叔妻從蘭妻借看蘭妻跪投木像木像不悅不以借之張叔醉罵木像以杖敲其頭蘭還見木像色不懌問其妻具以告之即奮擊張叔吏捕蘭蘭辭木像去木像見蘭為之垂淚郡縣嘉其至孝通於神明奏之詔圖其形像〔二十四孝圖云蘭刻木為母形〕

詩 刻木為親出至情晨昏定省似平生悅然容色能相接感應由來在一誠 孝思精微者冥冥間木像能為戚戚顏當代圖形旌至行誰人不道孝丁蘭

贊 哀哀丁蘭早喪慈顏衆人皆有我獨無焉刻木肖之事之惟生晨昏定省以盡誠敬噫後世人孝有其親生不[illegible][illegible]不識顏

동영은한ᄯᅢ사ᄅᆞᆷ이
니아비죽으매장ᄉᆞ
ᄒᆞᆯ길업서사ᄅᆞᆷ의
게돈열만을ᄭᅮ어쓰
고골오디후의반실
갑지못ᄒᆞ면맛당이
몸으로베쟝이되리
라ᄒᆞ엿더니장ᄉᆞ을
모ᄎᆞ매나아가죵이
되더니홀연길헤셔ᄒᆞᆫ
녀신을만나미원ᄒᆞ
여계집이되여지라
ᄒᆞ거ᄂᆞᆯ영이골오ᄃᆡ
이제ᄒᆞᆫᄂᆞᆫᄒᆞ매이럿
듯ᄒᆞ고ᄯᅩᄒᆞᆫ몸의놈
의죵이되야시니엇
지감히계집을삼으
리오녀인이골오ᄃᆡ
그ᄃᆡ의계집이되여
관빈ᄒᆞ고쳔ᄒᆞᆷ을븟
ᄭᅳ어ᄒᆞ너ᄒᆞ디라ᄒᆞ
거ᄂᆞᆯ영이드ᄃᆡ여ᄃᆞ
리고가리돈님게영

의게잡ᄂᆞᆫ리ᄃᆞ려곤
오뎌ᄀᆞ솜능홈지괴
잇ᄂᆞ뇨뎌답ᄒᆞ야ᄀᆞᆯ
오ᄃᆡ뵈ᄧᆞ기ᄅᆞᆯ잘ᄒᆞᆫ
뇌이다돈님계블소
뎌비단삼ᄇᆡᆨ필을ᄶᆡ
들이면밋다ᄉᆞ이노효
리라ᄒᆞ거ᄂᆞᆯᄒᆞᆫᄃᆞᆯᄉᆞ
이예삼ᄇᆡᆨ필ᄇᆡ단을
ᄧᆞ를산대돈님재코
게놀나주시노차도
라가라ᄒᆞ거ᄂᆞᆯᄂᆞ다
가녯날쉬ᄅᆞᆯ만낫던
곳의당ᄒᆞ이그계집
이영ᄃᆞ려ᄀᆞᆯ오ᄃᆡ나
ᄂᆞᆫ하ᄂᆞᆯ시엿ᄂᆞᆫ직녀
라그ᄃᆡ효셩이지극
ᄒᆞ매하ᄂᆞᆯ이날로ᄒᆞ
여곰그ᄃᆡᄅᆞᆯ위ᄒᆞ야
빗을갑파주라ᄂᆞ리
와보내여계시티니
라ᄒᆞ고말을ᄆᆞᆺ초매
공듕으로올나가니
다

董永千乘人父亡無以葬乃從人貸錢一萬曰後若無錢
還當以身作奴葬畢將往爲奴於路忽逢一婦人求爲妻
永曰今貧若是身復爲奴何敢屈夫人爲妻婦人曰願爲
君婦不恥貧賤永遂將婦人至錢主主問永妻曰何能妻曰
能織主曰織絹三百匹即放於是一月之內三百匹絹足
主驚遂放二人而去行至舊相逢處謂永曰我天之織女
感君至孝天使我爲君償債語訖騰空而去

得錢一萬葬其親身擬爲傭報主人豈料孝心終感
格天敎織女助身貧　孝念終能感上天爲敎織女助
還錢一月足縑三百匹飄然分手上雲煙

蘗蘗孝子千乘董氏傭力以養債身以葬路逢美婦
爲妻償負曰織縑帛一月三百償畢告語我乃織女天
遣償汝乘雲而去

원곽이란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그아뷔일홈은외니셩ᄒᆡᆼ이패역ᄒᆞ지라각의조뷔늙고병드니외ᄃᆡ졉ᄒᆞ기를슬히너겨각을명ᄒᆞ야삿ᄎᆡ담아싀여다가깁흔산즁의ᄇᆞ리고오라ᄒᆞᆫ대각이간ᄒᆞ히말니지못ᄒᆞ야산즁의ᄃᆡ브려다가두고그삿ᄎᆞᆯ도로가져고오니외ᄀᆞᆯ오ᄃᆡ이긔흉ᄒᆞᆫ긔슬어ᄃᆡᄡᅳ려ᄒᆞ고도로가져왓ᄂᆞ뇨각이ᄃᆡᄒᆞ야ᄀᆞᆯ오ᄃᆡ다ᄎᆞ아두엇다가부친을담아ᄇᆞ리

나석가랏노라ᄒᆞᆫ대
쇠코게붓ᄃᆞ려고야
비를도로터브리오
니라

元覺之父悟性行不肖覺祖年老且病悟厭之乃命覺舁
簣而棄於山中覺不能止從至山中收簣而歸悟曰凶器
何用對曰留以舁父悟慚遂迎祖歸

[illegible]元悟悖戾棄父窮山有子名覺收簣而還曰此凶器
次何用為親者舁送世世諄賢良心不亡自反知譏迎
父歸家奉養無怠

곽거ᄂᆞᆫ한적사ᄅᆞᆷ이
니집이간난ᄒᆞ야어
미를봉양ᄒᆞᆯᄉᆡ아ᄃᆞᆯ
이이셔세살마엇던
지타엄이상해먹ᄂᆞᆫ
밥을ᄯᅥ려주니게그
쳐ᄃᆞ려닐ᄋᆞ되
간난ᄒᆞ여어미를능
히공양치못ᄒᆞᄂᆞᆫ데
소식이어미반찬을
아사먹기로어미비
를골ᄒᆞ니이ᄌᆞ식을
ᄯᅡ희무티업시ᄒᆞ자
ᄒᆞᆫ대그쳬좃치놀ᄉᆡ
흙파석자희닐ᄋᆞ니
황금ᄒᆞᆫ가매잇ᄂᆞᆫ지
라가마우희글ᄶᅡ를
ᄡᅧ시ᄃᆡ하ᄂᆞᆯ이효ᄌᆞ

郭巨埋子 漢

곽거를주노라ᄒᆞ여
시니판가의비도능
히앗지못ᄒᆞ고관은
사ᄅᆞᆷ도곰히앗지못
ᄒᆞ더라

郭巨家貧養母有子三歲母常減食與之巨謂妻曰貧乏
不能供給子奪母膳可共埋之妻從之掘地三尺見黃金
一釜上有書云天賜孝子郭巨官不得奪人不得取

贊 郭巨家貧養親竭力母憐幼孫分其食謂兒奪祖

詩 母或飢呼妻掘地舉持埋之得金滿釜上有刻書天
賜孝子人勿奪諸

밍희는奉化사
몸이니파실을
푸타그어버시
를봉양ᄒᆞ되ᄠᅳᆺ
을바다신표ᄒᆞ
기쁠새리기ᄉᆞ
니ᄒᆞ너그아비
샹채날오되내
비록과반ᄒᆞ나
아돈을송솜이
물두엿노라ᄒᆞ
티나아비죽으
매입의슈장을
티치아니ᄒᆞ고
슬피블으지져
거스멀셩슨ᄒᆞᆼ
게되표거적을
삭쥐펴고그우

최셔거치ᄒᆞ고
삼년을염장을
먹지아니ᄒᆞ니
원근사름이다
탄복ᄒᆞ티니일
실의우연히쥐
물좃차ᄯᅡ흘프
라가황금수쳔
냥을이티인ᄒᆞ
야거부되니라

孟熙販果實養親承顏順志不憚苦辛其父常云我雖貧
養得一曾參及父亡絕漿哀號幾至滅性席苫于地寢三
其上三年不食塩酪遠近嘆服因見鼠掘地得黃金數十
兩因巨富焉

詩 家貧負販養嚴親承順何嘗憚苦辛歿後居喪能盡
禮行同曾子異常人　掘鼠何由還得金孝親於此感
天心一時不但家能富贏得香名說到今

왕부은위나라사름이
나아븨일홈은의라의
위나라안동장균ᄉᆞ마
쇼의막해되엿더니ᄉᆞ
마쇠동관의패호매화
의ᄃᆞ려우리군오되이
번패균ᄒᆞ미뉘타시되
리요의되ᄒᆞ야굴오되
그혀믄이웃듬쟝슈의
게잇ᄂᆞ니라회노ᄒᆞ야
굴오되패균ᄒᆞᆫ죄를네
게도라보내고져ᄒᆞᄂᆞ
냐ᄒᆞ고잡아내여버히
니븨그아비비명의죽
은줄을셜어티겨벼슬
ᄒᆞ지아니ᄒᆞ고숨어글
ᄅᆞᆯ으치기로일삼고나
라혀여러번블ᄋᆞ되나
지아녜ᄒᆞ그종신토록
셔로향ᄒᆞ여안ᄋᆞ아니
ᄒᆞ야진나라희신복지
아니ᄒᆞᆫ뜻을뵈고아

빅우딤겨티막을짓
고됴셕을븐묘의가빈
례ᄒᆞ고미양븐묘긋티
잣남글븟들고슯피오
미눈믈을남그ᄡᅳ스니
남기믈으터라어미샹
ᄒᆡ울레소리를무쉬워
ᄒᆞ더니어미죽은후의
매양우레ᄒᆞᄂᆞᆫ때면믄
득븐묘견ᄐᆡ나아가론
오ᄃᆡ녀여괴왼ᄂᆞ니이
다ᄒᆞ더라모시을븐을
ᄉᆡ엳시우뫼여말을나
거울슈표로이ᄒᆞ샷다
ᄒᆞᄆᆡ문의날으던칙을
텁고눈믈을훌니지
아니ᄒᆞ티이업스니문
하의금비호ᄂᆞᆫ사룸이
다늙아편을폐ᄒᆞ고닐
지아니ᄒᆞ티라

王裒字偉元城陽人父儀爲魏安東將軍司馬昭司馬東
關之敗昭問曰誰任其咎儀對曰責在元帥昭怒曰欲委
罪於孤邪引出斬之裒痛父非命隱居教授三徵七辟皆
不就終身未嘗西向而坐以示不臣於晉廬於墓側旦夕
常至墓所拜跪攀栢悲號涕淚著樹樹爲之枯母性畏雷
母沒每雷輒到墓曰裒在此讀詩至哀哀父母生我劬勞
未嘗不三復流涕門人受業者並廢蓼莪篇

詩 王裒爲孝自來無淚灑泉臺栢盡枯父死獨傷非正
命終身不仕只閒居　怕聽雷聲母性然每因雷動繞
墳前蓼莪未誦先流涕遂使門人廢此篇

贊 偉元喪父不應徵辟旦夕悲號淚灑墓栢每讀蓼莪
三復涕淚門人不忍遂廢此詩

맹종은오나라
ᄉᆞᄅᆞᆷ이니효힝
이지극ᄒᆞᆫ지라
그어미나히늙
고병이듕ᄒᆞ야
겨을의듁슌을
먹고져ᄒᆞ되ᄣᅢ
히어려듁슌이
업ᄂᆞᆫ지라종이
ᄃᆡᆺ수플의들어
가슬피우니이
윽ᄒᆞ야ᄯᅡ흐로
셔듁슌두어줄
기나거ᄂᆞᆯ키어
가지고도라와
국을ᄭᅳᆯ혀어믜
게드리니먹기
를다ᄒᆞ매병이
즉시ᄒᆞ리니사
ᄅᆞᆷ이다닐오ᄃᆡ
지극ᄒᆞᆫ효셩을

하ᄂᆞᆯ이감동ᄒᆞ다ᄒᆞ니라

孟宗性至孝母年老病篤冬節將至思筍食時地凍無筍宗入竹林哀泣有頃地上出筍數莖持歸作羹供母食畢病愈人皆以為至孝所感

詩 孝行當年說孟宗慈親思筍逼寒冬竹林灑淚哀號處數莖筍須臾出地中 母因食筍病全蘇天理昭昭信不誣惟以此心存孝念幽冥自有鬼神扶

贊 昔有賢士孟姓宗名冬寒母病思啜筍羹號天繞竹泣涕縱橫龍雛包籜雪裏羅生採歸供膳疾乃瘳平精誠既切感應孔明

왕샹은진나라낭야사ᄅᆞᆷ이니일즉어미를여희고계모쥬시ᄉᆞ랑치아니ᄒᆞ야ᄌᆞ조로ᄎᆞᆷ소ᄒᆞ니일로말미암아아비게ᄉᆞ랑을일코ᄆᆡ양마구를츠라ᄒᆞ되샹이더옥공슌ᄒᆞ더라부뫼병이시매오시ᄯᅴ를그ᄅᆞ지아니ᄒᆞ고탕약을친히맛보고미산고기를먹이고져ᄒᆞ되날이치워믈이어럿는지라샹이오슬벗고어름을

두ᄃᆞ리벗고기
롤구ᄒᆞᆫ디너ᄅᆞᆫ
두서ᄅᆞᆷ이조리
지고니여ᄃᆞᆯ히
ᄲᅱ여나티라어
미ᄯᅩ황새젹을
먹고뎌ᄒᆞ니황
새수십이ᄂᆞ라
드러오고어마
샹그로ᄒᆡ여곰
외삿셔ᄅᆞᆷ을직
희라ᄒᆞ니민양
ᄇᆞ람과비오면
믄득남글안고
우티라어비죽
으매이훼ᄒᆞ야
병들고여외여
막대를집흔후
의닐어나티라
후에벼슬ᄒᆞ야
삼공에니르니
라

王祥琅琊人蚤喪母繼母朱氏不慈數譖之由是失愛於
父母使掃除牛下祥愈恭謹父母有疾衣不解帶湯藥必
親嘗母嘗欲生魚時天寒氷凍祥解衣將剖氷求之氷忽
自解雙鯉躍出母又思黃雀炙復有黃雀數十飛入其幕
有丹柰結實母命守之每風雨輒抱樹而泣母歿居喪毁
瘠杖而後起後仕於朝官至三公

詩 王祥誠孝眞堪羡承順親顔志不回不獨剖氷雙鯉
出還看黃雀自飛來　鄕里驚嗟孝感深皇天報應豈
純心白頭童作三公貴行誼尤爲世所欽

贊 晉有王祥生魚母嗜天寒氷凍綢繆難致解衣卧氷
自躍雙鯉懇懇孝誠奚止此耳抱柰夜歸羅雀朝饋[illegible]
拜三公名標靑史

허ᄌᆞᄂᆞᆫ진나라동
양사ᄅᆞᆷ이니나히
스믈에예쟝태슈
공츙을ᄉᆞᄉᆡᆼᄒᆞ야
딥기나가효ᄒᆞᆫ의
도라왓더니츙이
죽으매삼년을거
상ᄒᆞ고이윽고부
뫼ᄅᆞᆯ죵으니채쳑
ᄒᆞ야ᄠᅦ드리나고
어미ᄃᆞᆫ모든식봄
소ᄒᆞᆰ을지고뫼올
사ᄅᆞᆷ의돕ᄂᆞᆫ거ᄉᆞᆯ
밧지아니ᄒᆞ더라
삼년을ᄒᆞᆫ골ᄀᆞ치
칩ᄋᆞᆸ블으지시니
새즘ᄉᆡᆼ이ᄂᆞ라와
못고훌로어미무
텀을작희너송백
을심그니오쇽니
의버덧티니ᄒᆞᆫ사

슴이솔을상ᄒᆞ오
거ᄂᆞᆯ지탄식ᄒᆞ야
골오ᄃᆡ사슴이날
을ᄒᆞᆷ티치아니ᄒᆞ
논ᄯᅩ다엿튼날사
슴이범의죽인배
되어그솔아리ᄃᆞ
엿거ᄂᆞᆯ므텀열ᄑᆡ뭇
히뭇으니그후로
난기덤궐혐ᄎᆞ놀
지라져이예티ᄒᆞ막
을므텀알에짓고
죽은어미이ᄒᆞᆫ기
기룰산이ᄀᆞᆺ치ᄒᆞ
니고올사ᄅᆞᆷ이그
사논ᄃᆡ를일ᄏᆞᄅᆞᆺᄒᆞᆷ
여ᄅᆞᆯ오ᄃᆡ효순ᄎᆞᆺ
이라ᄒᆞ더라

許孜東陽人年二十師事豫章太守孔沖□□還鄉里沖亡孜制服三年俄而二親殁柴毀骨立杖而能起建墓於縣之東山躬自負土不受鄉人之助每一悲號鳥獸翔集孜獨守墓所列植松柏亘五六里有鹿犯所植松孜悲歎曰鹿獨不念我乎明日鹿爲猛獸所殺置於所犯松下孜埋隧側自後樹木滋茂孜乃立宅墓次事亡如存邑人號其居爲孝順里

詩 孝事雙親義事師此心應只有天知辛勤營墓頻哀慟鳥獸徊翔亦愴悲　墓前松栢已蒼蒼鹿本無知遂觸傷一旦戕生依樹下是知神應使孝心彰

贊 許孜孝慈好學有益友喪其親盡哀而造負土東山鳥獸翔集人之見之[illegible]不爲也

샤연은진나라셔하
사ᄅᆞᆷ이라아홉살의
모의상ᄉᆞᄅᆞᆯ만나삼
년을피눈물을흘리
거의죽기의니ᄅᆞ고
긔양테ᄉᆞᄃᆞᆯ을당ᄒᆞ
면ᄂᆞᆯ이진토록슬피
울고계오복시사오
나와챵윤봐삼즉긔
룰오치두어닙히니
면이살오릐좀좀ᄒᆞ
티라복시일ᄅᆞᆯ쥬어올
의산고기ᄅᆞᆯ먹고져ᄒᆞ
여연두터어드라ᄒᆞ야
못어든즉피나게티
니연이분슈한물의
가어롬을두드리며
우니문득큰고기뛰

여나거놀가져다가
드리니어미이에ᄭᅵ
ᄃᆞ라연을ᄉᆞ랑ᄒᆞ믈
킈출곳치ᄒᆞ더라티
룸이면며개의브쳐
질ᄒᆞ고저울이면룸
으로배더불을ᄂᆞᆫ、ᄉᆞ
계ᄒᆞ야드리고몸의
ᄂᆞᆫ칭ᄒᆞᆫ오시업ᄉᆞ되
어버의게ᄂᆞᆫ맛됴흔
음식이굿지아니ᄒᆞ
더라부뫼죽으메므
넘뎟어터락ᄒᆞ니라

王延西河人九歲喪母泣血三年幾至滅性每至忌月則
悲啼三旬繼母卜氏遇之無道恒以蒲穰及敗麻頭與
貯衣延知而不言卜氏嘗盛冬思生魚使延求而不獲杖
之流血延尋汾水叩凌而哭忽有一魚長五尺踊出冰
取以進母食之積日不盡於是心悟撫延如己生延事親
色養夏則扇枕席冬則以身溫被隆冬盛寒身無全衣而
親極滋味父母終廬於墓側

孝道能敦在稚年哀心一點出天然三年泣血應言
憫忌月悲啼更可憐 繼母相看性不慈心存孝敬奏
曾襄汾濱哀哭魚隨躍此意皇天启主知

반죵은진나라오흥
가람이라손은이란
도적의난에도적이
고올을티파ᄒᆞ니죵
이아비표를ᄃᆞ리고
ᄒᆞᆫ가지로ᄃᆞ라날ᄉᆡ
아비나히늙어것지
몯ᄒᆞ고도적은텹텹
다ᄃᆞᄅᆞ니그아비죵
ᄃᆞ려닐오ᄃᆡ나ᄂᆞᆫ것
지몯ᄒᆞ니네나ᄃᆞ라
나시다죽지말미올라
라ᄒᆞ고곤핍ᄒᆞ계안
ᄠᅥ니지아니ᄒᆞ니죵
이도적을마자머리
를두ᄃᆞ려비러ᄀᆞᆯ오
ᄃᆡ아비를살오쇼셔
표ᄯᅩᄒᆞᆫ청ᄒᆞ여ᄀᆞ로
ᄃᆡ이히날을위ᄒᆞ여
갓지아니ᄒᆞ니나ᄂᆞᆫ
죽기를앗기지아니

ᄒᆞᄂᆞ니 날을 죽이고 아ᄒᆡᄅᆞᆯ 살오라 도적이 갈로 표ᄅᆞᆯ 치니 죵이 아비ᄅᆞᆯ 안고 업ᄃᆡ 도적이 죵의 머리와 ᄂᆞᆺ출 ᄶᅵ으니 네 곳이 샹ᄒᆞ엿ᄂᆞᆫ지라 죵이 긔졀ᄒᆞ엿더니 ᄒᆞᆫ 도적이 외오 모든 적ᄃᆞ려 니ᄅᆞᄃᆡ 이 아ᄒᆡ 죽기로ᄡᅥ 아비ᄅᆞᆯ 구ᄒᆞ니 효ᄌᆞᄅᆞᆯ 죽이면 샹셔 아니라 ᄒᆞᆫ대 적이 감동ᄒᆞ야 드듸여 도라가니라 원가ᄉᆞ년의 유ᄉᆡ 이 말을 나라히 드리워 그 ᄆᆞ올 일홈을 곳쳐 효슌촌이라 ᄒᆞ고 삼ᄃᆡ을 복호ᄒᆞ다

潘綜吳興人孫恩之亂妖黨攻破村邑綜與父驃共走避賊驃年老行遲賊轉逼驃驃語綜曰我不能去汝走可脫幸勿俱死驃困乏坐地綜迎賊叩頭曰父年老乞賜生命賊至驃亦請曰兒年少能走為我不去我不惜死乞活此兒賊因斫驃綜抱父於腹下賊斫綜頭面凡四創綜已悶絕有一賊來語衆曰此兒以死救父殺孝子不祥賊乃止父子並得免元嘉四年有司奏改其里為純孝闔租布三世

詩 避難何堪喪亂餘干戈擾擾遍村墟不逢旁寇能開釋父子當時死盜區
亂離重遇太平年三世公租已盡蠲閭道吳興存舊業里名純孝至今傳

유검루ᄂᆞᆫ졔나라산
야사ᄅᆞᆷ이라잔능현
민되야도임ᄒᆞᆫ실흘
아니ᄒᆞ야셔아비집
의셔병드럿더니검
누믄득ᄆᆞ옴이놀라
와몸의ᄯᆞᆷ이흐르ᄂᆞᆫ
지라즉시벼슬을ᄇᆞ
리고집의도라오니
집사ᄅᆞᆷ이다놀나더
라이ᄯᆡ에아비병드런
지엿흘이라의원이
닐ᄋᆞ되병의경듕을
알고져ᄒᆞ거든그ᄯᆞᆼ
을맛보라검뉘그ᄯᆞᆼ
을맛보매다시돌고
밋그러오니ᄆᆞ음의
더욱근심ᄒᆞ여저녁

마다 북신을 향ᄒᆞ야
머리 물두ᄃᆞ리 몸으
로ᄡᅥ 더ᄒᆞ믈 비러 이
우ᄒᆞ여 공듕의 ᄯᅡ보
ᄋᆞ되 네 아배 명이 진
ᄒᆞ여 시니 다시 살오
지 못ᄒᆞᆯ거시로되 네
졍셩이 지극ᄒᆞ니 아
직 의ᄂᆞᆯ ᄭᆞ지 ᄎᆞᆯ오노
라 죽은 후의 거상ᄒᆞ
믈 톄에 넘게 ᄒᆞ고 무
덤 곁ᄒᆞ여 막 ᄉᆞ니라

庾黔婁新野人爲孱陵令到縣未旬父易在家遘疾黔婁
忽心驚擧身流汗即日棄官歸家家人悉驚其忽至時易
疾始二日醫云欲知差劇但嘗糞甜苦易泄痢黔婁輒取
嘗之味轉甜滑心愈憂苦至夕每稽顙北辰求以身代俄
聞空中聲曰聘君壽命盡不復可延汝誠禱旣至故得至
月末晦而易亡黔婁居喪過禮廬於墓側

[詩] 孱陵作令忽心驚棄職還家父疾嬰消息何曾來遠
道感通應是在純誠　願將身殞代嚴親稽顙中天禱
北辰便覺有聲傳報應從來孝念感神人

[贊] 在家父病庾令驚汗棄官忽歸人恠且嘆嘗糞而甜
不勝自憂稽顙北辰乞身以代

술을비져먹으면
풍병의효험이니
특히나라숙겸이
녀이어진효로는
물을옹하니녀염의
병으로이약을구
호는뜻을니루니
그사름이수시방
품음비주기를수
며술빗는법을
드쳐미는숙겸이
빗아가지고다시
나라근처인이문
는관대엽는지라
드키와술을비져
어미를먹이니병
이즉시낫슨이니라

解叔謙鴈門人母有疾叔謙夜於庭中稽顙祈福聞空中
語云此病得丁公藤爲酒便差即訪醫及本草皆無識者
乃求訪至宜都郡遙見山中一老公伐木問其所用答曰
此丁公藤療風尤驗叔謙便拜伏流涕具言來意此公愴
然以四段與之并示以漬酒法叔謙受之顧視此人已忽
不見依法爲酒母病即差

贊 母疾求醫夜憂仰天稽顙告祈求神明時感誠心
初說難良方治病由　叔謙孝感豈徒然應有精誠達
上天忽得丁公藤漬酒即令母病頓安痊

블이로오되네아비롤
비ᄒᆞ여죽어지라ᄒᆞ니
그ᄭᅴᄎᆞ니외비죽으
미므신지아니ᄒᆞ나티
ᄒᆞ야블오되ᄇᆡ비목나
ᄒᆡ어미ᄒᆞ설기죽기두
려운줄을모로미ᄂᆞᆫ마
ᄂᆞᆫ츙아아비죽으믈보
지못ᄒᆞ야뎌ᄂᆞ야죽기
를원ᄒᆞ노라ᄒᆞ고옥의
나사가서법되퍼득이
더텨칼을벗기랴ᄒᆞᆫ대
변이골오되죽을죄인
이엇지칼을바ᄉᆞ리오
법되이말로ᄡᅥ님금ᄭᅴ
알외니즉지변의아비
ᄅᆞᆯ노코죠쉬ᄒᆞ여변을
ᄲᅢᄒᆞ이시다

吉翂馮翊人父爲吳原鄉令爲吏所誣逮詣廷尉翂年十五
號泣衢路祈請公卿見者隕涕其父理雖清白而耻爲吏
訊虛自引咎當大辟翂撾登聞鼓乞代命武帝嘉之以其
幼疑受教於人勅廷尉蔡法度脅誘取款法度盛陳徽纆
厲色問曰爾來代父死勅已相許然刀鋸至劇審能死不
若有悔異亦相聽許對曰囚雖蒙弱豈不知死可畏不忍
見父極刑所以殉身不測翂初見囚獄掾依法桎梏法度
命脫二械翂弗聽曰死囚豈可減乎法度以聞帝乃宥其
父揚州中正張仄薦翂孝行勅太常旌擧

詩

父爲遭誣陷極刑 誓將身代愬中情 誰知天鑑非玄
遠 父子俱全表孝誠

堪羡兒童有至情 哀號代父感
朝廷 當年孝行蒙旌擧 遂使千秋有令名

은븜ᄒᆞᄂᆞᆫ낭나리던
군사ᄅᆞᆷ이리아븨상
ᄉᆞᄅᆞᆯ만나이획ᄒᆞ기
ᄆᆞᆯ톄에범게ᄒᆞ고다
ᄉᆞᆺ가이파어렷ᄂᆞᆫ디
라블해우흐로어미
믈셤기며아래로모
든아ᄋᆞ들을어ᄅᆞ므
쥐평ᄒᆡᆼ이지극ᄒᆞ니
틴지긔특이텨기샤
그어미채시믈비단
의복과침ᄐᆡᆨ을주시
다후의병난을만나
어미ᄅᆞᆯ일흐나ᄂᆞᆫ리
티위ᄂᆞᆫ이ᄶᅡᆨ희ᄑᆞ족
은사ᄅᆞᆷ이굴왕의ᄆᆞ
독궁엿ᄂᆞᆫ지라블해
을고ᄂᆞᆫ니며어믜죽
엄을어들식죽엄마
다붓드러보ᄑᆞ슈쟝
을먹지아니ᄒᆞ연지

날웬만의엄의죽엄
을엇고통곡ᄒᆞ야긔
절ᄒᆞ니보ᄂᆞᆫ사ᄅᆞᆷ이
다눈믈을흘리더라
아ᄋᆞ블령이ᄯᅩᄒᆞᆫ효
ᄒᆡᆼ이지극ᄒᆞ더니어
미죽글ᄯᅢ의결흘통
치못ᄒᆞ연지베싀리
듀야로울며거취와
음식을강잉ᄀᆞᆺ치ᄒᆞ
더니엽미상귀도라
오매몸소흙을져못
ᄒᆞ야송백을심으며ᄯᅩ
시와복남의산을ᄒᆞᆫ
가명시아니ᄒᆞ더라

殷不害陳郡人居父憂過禮有弟五人皆幼不害事老母
養小弟勤劇無所不至簡文帝賜其母蔡氏錦裙襦氈席
被褥魏平江陵失母時甚寒雪凍死者塡溝壑不害行
哭求屍見死人即投身捧視擧體凍僵水漿不入口者七
日始得母屍哭輒氣絶行路流涕蔬食布衣枯槁骨立弟
不佞亦至孝方母死時道路隔絶者四載中夜號泣居處
飮食常爲居喪之禮及母喪柩歸身自負土手植松栢每
歲時伏臘必三日不食

詩 百行由來孝最先 人心盡孝理當然 慈親不幸塡溝
壑 七日哀求重可憐 父母劬勞竟莫酬 昊天罔極恩
慇慇殷家兄弟能行孝 萬古揚名永不休

왕슝은위나라옹구
ᄉᆞᄅᆞᆷ이라어미죽으
매의훼ᄒᆞ여몸기ᄆᆞ
ᄅᆞ니막대을집ᄒᆞᆫ후
의닐어나고귀밋히
털이다ᄲᅡ지고빈소
겻ᄐᆡ녀막ᄒᆞ야듀야
로슬피우니새즘ᄉᆡᆼ
이ᄂᆞ라와못고가듕
의몸이희고눈이거
믄새이셔녀막우희
점줏고가지아니ᄒᆞ
더라삼년을못ᄎᆞ매
ᄯᅩ아비죽으니이쳑
ᄒᆞ기ᄅᆞᆯ뎌에더ᄒᆞ게ᄒᆞ
더라이ᄯᅢ녀ᄅᆞᆷ의큰
ᄇᆞᄅᆞᆷ블고ᄂᆞᆯ의만이
오나지나ᄂᆞᆫ곳의즘
ᄉᆡᆼ이죽고초목이ᄒᆞᆺ
거리되슝의밧히ᄂᆡ
ᄂᆞ려ᄂᆞᆫᄇᆞᄅᆞᆷ과 의
믄득긋쳐자가맛출

지나며도로니러나
더라아비삼년을뭇
뵈인ᄒᆞ여묘ᄉᆞ의셔
과너집담히플ᄒᆞᆫ불
기바야님히심거무
쳐옹ᄯᅩ며윤의ᄯᅢ無
ᄒᆞᆫ일하여셔집우희
깃드려삿기케흘쳐
되젼든녀ᄌᆞᄒᆞ야놀
나지아녀ᄒᆞᄂᆞᆫ지라
나라히드르시고졍
문집을졍표ᄒᆞ니라

王崇雍丘人母亡居喪哀毁顇瘠杖而後起鬢髮墮落廬
於殯所晝夜哭泣鳩鴿群至有一小鳥素質黑眸形大雀
棲於崇廬朝夕不去母服初闋復丁父憂悲毁過禮是
年夏風雹所經禽獸暴死草木摧折至崇田畔風雹便
止禾麥十頃竟無損落及過崇地風雹如初崇雖除服仍
居墓側室前生草一根莖葉甚茂人莫能識至冬復有鳥
巢崇屋乳養三子馴而不驚事聞詔旌表門閭

詩 孝道由來動鬼神王崇至行出天眞珍禽繞屋能馴
擾異草當堦別有春　風雹摧殘物盡僵崇家禾麥豈
曾傷自緣孝行通天地　賴有靈祇爲顯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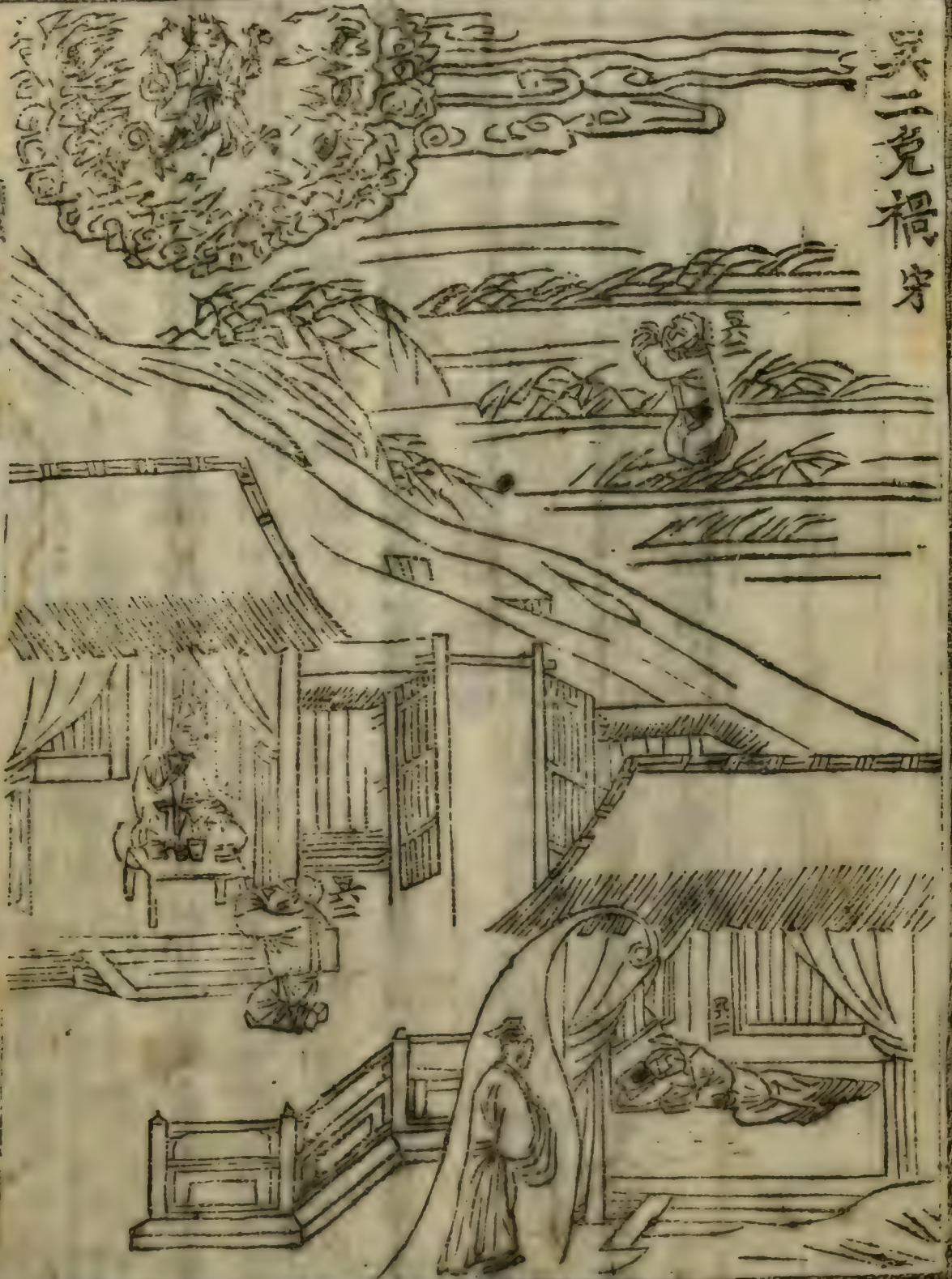
뎡효슉은숑나라곱
챠사ᄅᆞᆷ이라어니쉬
아비죽으니아비얼
쳘몰ᄋᆞ지못ᄒᆞ야조
다매그어미ᄃᆞ려다
빈얼굴을무ᄅᆞᆫ대답
의게그려ᄉᆞᄃᆞ의두
고아참위티으로비
례ᄒᆞ고사방으로제
ᄒᆞ며어미를지셩으
로셤기지수삼년의
졉사ᄅᆞᆷ이그셩내ᄂᆞ
빗출보지못ᄒᆞ더니
어미병으로매요슉이
친히ᄆᆞᄅᆞᆫ디와져즌
뒤를밧고와누어이
미몸을편케ᄒᆞ고근
심ᄒᆞ야여의기샴ᄒᆞ

셔젹은송나라초쥐
사ᄅᆞᆷ이라세ᄉᆞᆯ의아
비죽으니아ᄎᆞᆷ마다
아비무덤의가심히
슬워ᄒᆞ고어미를셤
길셰갓파셔를닙
히ᄒᆞ고도ᄅᆡ문안ᄒᆞ
며효원을좃차ᄆᆞᆫ비
ᄒᆞᆫ서원이밥을먹이
면밧자아니ᄒᆞ더다
파거보려셔울갈셔
초마어미를셤나지
못ᄒᆞ여가지로실
어갓티니장ᄉᆞᄒᆞ계
ᄒᆞ매히ᄒᆞᆫ국이동현
을귀ᄒᆞ려ᄑᆞ들어와
보고ᄇᆡᆨ금을주며천
슈ᄒᆞ라ᄒᆞᆫ대샤례ᄒᆞ
고밧자아니ᄒᆞ니라
아비실훔이돌력ᄌᆞ
라이리ᄒᆞ무로일싱
돌ᄒᆞ고는슬보지아니

ᄒᆞ고관ᄃᆡᄅᆞᆯᄒᆞᆫ단나
맏피ᄒᆞ셔권지아니
ᄒᆞ티라어미죽으매
쉬동ᄒᆞ여피을토ᄒᆞ
고삼년을티막의이셔
설ᄂᆞ야의무덤읫디엽
ᄃᆞ여울게ᄅᆞᆯ그치지
아니ᄒᆞ니한님ᄒᆞᄉᆞ
뎌젼이그무덤을지
나다가뭇고ᄯᅩ믈을
흘리티가ᄃᆞ이ᄉᆞᆯ이
무덤암회ᄲᅧ리지고
ᄉᆞᆯ고두가지나ᄲᅧᄒᆞᆫ
뒤합ᄒᆞ엿ᄃᆡ라삼년
을지내되궤연을것
지아니ᄒᆞ고긔거ᄒᆞ
며음식들이기ᄅᆞᆯ상
시ᄀᆞ치ᄒᆞ니쉰이그
효힘을남ᄒᆞ니ᄂᆞᆯ이
ᄉᆞᆫ대곡석과비단을
주고주은우의치죵
이시ᄒᆞᄅᆞᆷ졀ᄒᆞᆫ효ᄌᆞ셔
라ᄒᆞ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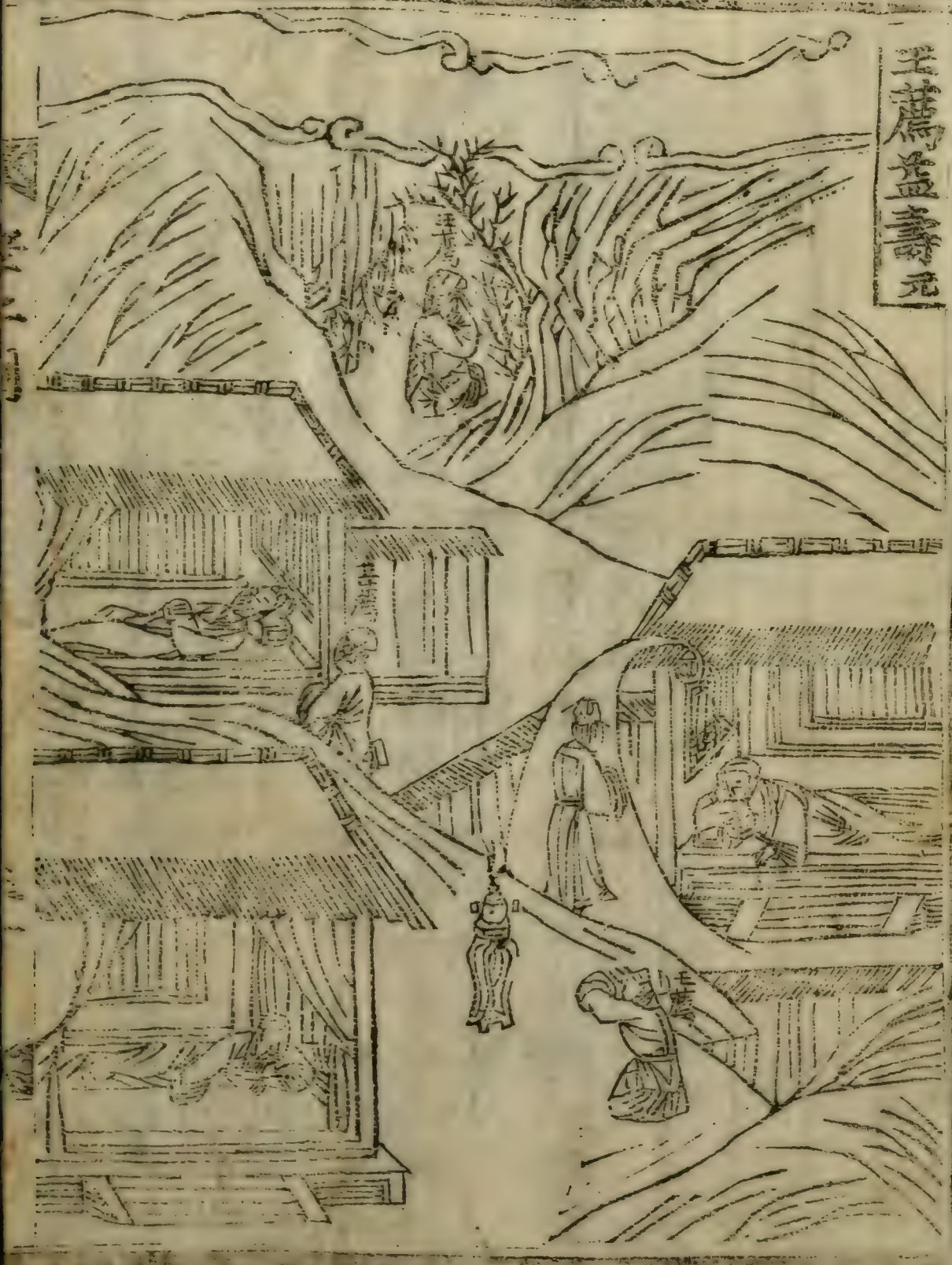
徐積楚州人三歲父死旦旦求之甚哀事母[illegible]夕冠帶定
省從胡瑗學瑗饋以食弗受應舉入都不忍捨其親徒載
而西登第舉首許安國率同年入拜且致百金為壽謝而
却之以父名石終身不用石器行遇石則避而不踐母亡
悲慟嘔血廬墓三年雪夜伏墓側哭不絕音翰林學士呂
溱過其墓聞之泣下甘露歲降兆域杏兩枝合幹既終喪
不徹筵几起居饋獻如平生州以行聞詔賜粟帛皇祐初
為楚州教授又轉和州防禦推官徽宗賜謚節孝處士

贊 嬰孩亡父日哀求感切中情涕泗流事母更能躬孝
養當時名士復誰儔　致養居喪總盡情神明默贊顯
祥禎重齎朝命榮褒寵今古人傳節孝名

나가기ᄅᆞᆯ 허티 아니ᄒᆞ더니 이
윽ᄒᆞ여 우레 ᄀᆞᆺ치고
구ᄅᆞᆷ이 빗ᄉᆞ하ᄆᆡ
히날려 ᄀᆞᆷᄒᆞ도다 오
그이의게 ᄀᆞᆯ오ᄃᆡ
ᄒᆞ오히려 놀ᄂᆞᆯ가ᄒᆞ
아 감히 고치 못ᄒᆞ엿
더니 이 밤의 귀신
이 와 나무ᄅᆡ ᄆᆡ지
효로ᄒᆞᄆᆞᆯ이 감동ᄒᆞ
여 임의 죄ᄅᆞᆯ 샤ᄒᆞ엿
지니 더옥 공경ᄒᆞ라
업이 ᄆᆞᆯ습ᄒᆞ기라 ᄒᆞ니
라

吳二臨川小民事母至孝一夕有神見夢曰汝明日午刻當爲雷擊死吳以老母在堂乞救護神曰受命於天不可免也吳恐驚其母凌晨具饌以進白云將他適請暫詣妹家母不許俄黑雲起日中天地冥暗雷聲闐闐然吳益慮驚母趣使閉戶自出野田以待須之雲氣廓開吳竟免禍亟歸拜其母猶疑神言不實來歟以告是夜復夢神曰汝至孝感天已宥宿惡宜加敬事

詩 宿譴應知分殞生夢中神報甚分明凌晨具饌還供母欲適他家恐母驚　雷霆震怒轟闐待罰從容出野田雲散倏然天日霽只緣事母孝心虔

왕薦은원나라
북평사ᄅᆞᆷ이라
아비실득병이
등ᄒᆞ매薦이밤
마다하ᄂᆞᆯ께빌
으되원컨대나
랑흘감ᄒᆞ여아
비나흘더ᄒᆞ야
지이다ᄒᆞ더니
아비별학ᄒᆞ엿
다가다시사라
나니톄되친인
이누훈옷닙고
블곤것쁘고와
날ᄃᆞ뎌뷬로뢰
비아도효행이
지극ᄒᆞ니샹뎨
명ᄒᆞ여복나심
돌흠뎌ᄒᆞ노라
ᄒᆞ니고이ᄒᆞ다
ᄒᆞ더니블두벽
이ᄎᆞ려그후엔
두혀만의주으

나라어미심시
갈병을어ᄃᆞᆺ티
니헌ᄃᆞ리ᄂᆞᆯ으
되인ᄅᆞᆯ먹으ᄆᆞ
내갈병이나으
리마ᄒᆞ되이ᄯᆡ
마좀겨울이매
구ᄒᆞ여엇지못
ᄒᆞ고헝ᄒᆞ여심
월ᄅᆞᆼ이라ᄒᆞᄂᆞᆫ
뒤ᄂᆞ르리눈을
만나나모아래
쉬눈을피ᄒᆞ더
어미병을싱각
ᄒᆞ고하ᄂᆞᆯ을울
어리우ᄃᆡ나흘
연합혹ᄉᆡ이ᄅᆞᆯ
보니프ᄅᆞᆫ줄기
나모가지에얼
켜의ᄉᆞᆯ히잇거
늘ᄯᆞᄒᆞ가어미
ᄅᆞᆯ먹이니ᄂᆞᆫ병
이ᄂᆞᆨ시홀이기
다

王薦福寧人父嘗病甚薦夜禱於天願減己壽益父壽父
絕而復甦告其友曰適有神人黃衣紅帕首恍惚語我曰
汝子孝上帝命錫汝十二齡疾遂愈後果十二年而卒母
沈氏病渴語薦曰得瓜以啖我渴可止時冬月求於鄉不
得行至深奧嶺值雪薦避雪樹下思母病仰天而哭忽見
巖石間青蔓離披有二瓜焉因摘歸奉母母食之渴頓止

詩 父病精虔禱上天願將己筭益親年孝心感格天心
順恍惚神將帝命傳　母渴思瓜正值寒那堪山路雪
漫漫雙瓜忽產空巖裏歸奉慈親病頓安

임으로ᄲᅥ니ᄅᆞᄀᆡᄂᆞᆯ
지아니ᄒᆞ더라ㅣ샹
결림등ᄒᆞ니손ᄀᆞ락
을ᄢᅢ무러터브리영
딘ᄒᆞ고다리ᄉᆞᆯ을베
여죽의타나오니다
시살아나티너두돌
만에ᄯᅩ너짐이되
빈손ᄒᆞ고스아븨무
덤의반장코져ᄒᆞ여
이놉ᄒᆞ연지다ᄉᆞᆺᄒᆡ
로되도라오지못ᄒᆞ
엿더니이일을드ᄅᆞ소
참쉐들으시고貴太
졸보내여뉴시ᄅᆞᆯ솟
호볼파은이십냥을
주시고쟝구을보내
여도라와며쟝ᄒᆞ게
ᄒᆞ고졍문을세오고보
ᄒᆞ다

劉氏眞定人韓太初妻太初洪武七年遷和州挈家行劉事姑甯氏甚謹姑在道遇疾劉刲臂血和湯以進姑疾愈至和州復病亦如之比至和州太初卒劉種蔬以給食養姑尤謹又二年姑患風不能起時盛暑劉晝夜侍側驅蚊蠅姑體腐蛆生又爲齧蛆蛆不復生及姑病篤齧劉指與之訣劉號呼神明刲股肉和粥以進姑復甦越月而卒劉殯舍側欲還葬舅墓哀號凡五年不能歸事聞
太祖皇帝遣中使賜劉衣一襲鈔二十錠官爲遣喪歸葬旌門復家

臂刲血和湯姑疾甦夫亡無食種園蔬蛆生姑體偏能齧盛夏蚊蠅更爲驅　朝廷特爲送姑喪姑得還鄉葬舅傍旌表門閭兼寵眷古來孝婦實無雙

한림학ᄉᆞ최누백은
고려적슈원호댱의
아ᄃᆞᆯ이라나히열다
ᄉᆞ시아비산영ᄒᆞ다
가범의게해ᄒᆞᆫ배되
니누백이범을ᄌᆞ차
잡고져ᄒᆞ거ᄂᆞᆯ어미
말린대누백이ᄀᆞᆯ오
ᄃᆡ아비원슈를엇지
갑지아니ᄒᆞ리오ᄒᆞ
고즉시도최ᄅᆞᆯ메고
범의자최ᄅᆞᆯᄯᆞᆯ오니
범이임의다먹고ᄇᆡ
브르누엇거ᄂᆞᆯ누백
이바로압히도삽들
어범을ᄭᅮ지저ᄀᆞᆯ오
ᄃᆡ네내아비를먹어
시니내맛당이너를
먹으리라ᄒᆞᆫ데ᄭᅩ리
를치고업ᄃᆡ거ᄂᆞᆯ
처로쳑어ᄇᆡ를헤치

표아비뼈와살을내
여그르세담고범의
고기를항에너허믈
하온대무고아비를
영장ᄒᆞ오후의묘측의
려막ᄒᆞ엿더니ᄒᆞᄅᆞᆫ
꿈을주니그아비와
글을읇허ᄀᆞᆯ오되가
시덤불을헤치고효
조의집의니ᄅᆞ니뎡
이만ᄒᆞ매늣기ᄂᆞᆫ눈
믈이무궁ᄒᆞ도다ᄇᆞᆯ
ᄒᆞ여비치믈쳬고인
ᄒᆞ야교듸업더라ᄂᆞᆯ
생을못ᄎᆞ매즈식범
의고기ᄅᆞᆯ뼈에다ᄆᆡ
으니라

翰林學士崔婁伯水原戶長尙翥之子年十五時父因獵
爲虎所害婁伯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讎可不報乎即
荷斧跡虎虎既食飽臥婁伯直前叱虎曰汝食吾父吾當
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刳其腹取父骸肉安於器納
虎肉於甕埋川中葬父弘法山西廬墓一日假寐其父來
詠詩云披榛到孝子廬情多感淚無窮負土日加塚上知
音明月淸風生則養死則守誰謂孝無始終詠訖遂不見
服闋取虎肉盡食之

贊 崔父山中獵兔狐却將肌肉餧於菟當時子有兒郎
孝誰得揮斧斫虎顱　捕虎償冤景可憐山西廬墓又
三年小祠來誦眞非夢端爲孝誠徹九泉

김ᄌᆞ강은 셩쥬사
룸이라 나히 어려
셔 아비 죽고 어미
를 셤기되 ᄯᅳᆺ을 승
슌ᄒᆞ며 그 릇ᄒᆞ미
업더니 어미 죽으
매 샹뎨를 ᄒᆞᄂᆞᆫ 홀 굿
치 기례를 조차 그
아비와 합장ᄒᆞ고
삼년을 시묘ᄒᆞ야
잠시도 간을 쉰지
아니ᄒᆞ더니 삼년
이 지나매 아비를
위ᄒᆞ여 ᄯᅩ 삼년을
시묘ᄒᆞ려ᄒᆞ거늘
쳐가 결레들이 잇
글고 길로 나가 인
ᄒᆞ여 그 터 막을 블
지ᄅᆞ니 조강이 뵈

빗출ᄇᆞ라보고하
ᄂᆞᆯ을부ᄅᆞ며ᄯᅡ흘
구ᄅᆞ고ᄯᅡ라가무
덤안ᄒᆡ업더지
사흘이로ᄃᆡ니러
나지아니ᄒᆞ니거
다옴그효셩을감
동ᄒᆞ여다시녀막
을지여주니ᄌᆞ강
이졍녀을기ᄒᆞ여
쳐음ᄀᆞᆺ치ᄒᆞ니라

金自強星州人年幼喪父奉母極順無闕母喪不用浮屠一依家禮比葬還父合葬廬墓三年輯不納須服闋又欲為父更居三年妻黨率引登途仍焚其廬自強顧瞻壟呼天擗地力排還歸伏塚下三日不起姻戚感孝誠為復結廬以與之自強又居三年如初

詩 髫年父歿奉慈闈順色承顏罔或違喪盡禮儀仍合葬守墳三載淚潸衣 終喪復為父居廬苦被姻親強可惜親櫬壟兆號擗地至誠能感得如初

셕딘은본됴됴샹
허야련이라아비텬
을이와질을어티불
마다달셕공ᄒᆞ나삼
이ᄎᆞ마그거동을보
지못ᄒᆞᄂᆞᆫ지라셕딘
이쥬야로뫼셔호ᄒᆡ
ᄒᆞ되하ᄂᆞᆯ께빌고두
로의약을구ᄒᆞ니사
ᄅᆞᆷ이니ᄅᆞ되산사ᄅᆞᆷ
의ᄲᅧ를골아피에타
먹으면효험이리라ᄒᆞ
대셕진이즉시왼손
무명지를버혀피의
타먹이니병이즉시
ᄒᆞ이니라

俞石珎高山縣吏也父天乙得惡疾每日一發發則氣絶人不忍見石珎日夜侍側無懈籲之于天廣求醫藥人言生人之骨和血而飮則可愈石珎即斷左手無名指依言以進其病即瘳

讚

父患沉痾久未瘥　兒心悶絶叫蒼天
誰知一粒靈丹劑　却在無名指細研

父子天倫萬古同　奈隨王化有汙隆
觀圖毋向高風揖　藉甚名聲永不窮

윤은보와셔즐은본
ᄂᆞᆫ디례사ᄅᆞᆷ이라ᄒᆞᆫ
가지로댱지도의게
글ᄇᆡ호더니둘히셔
근너로딕스승은부
모와ᄒᆞᆫ가지라올이
스승이ᄌᆞ식이업스
니우리둘히봉양ᄒᆞ
리라ᄒᆞ고됴ᄒᆞᆫ음식
을어드면믄득먹이
고ᄯᅢᄯᅢ즈음찬을ᄀᆞᆺ초
아야비팀김ᄀᆞᆺ치ᄒᆞ
더니스승이죽으매
두사ᄅᆞᆷ이시묘ᄒᆞᆷ을
아비폐칫ᄒᆞ대아비
어엿비터거히ᄒᆞ니
둘히ᄃᆡ복ᄒᆞ고묘방
의졔ᄒᆞ여몸소밥지
어졔ᄒᆞ더니은뵈아
ᄇᆡ병들매주시도라
와탕약을밧들더오
시며를그롯아니

ᄒᆞ고병이ᄒᆞᆷ이매ᄇᆡ
마의도라갓더니월
여의은뵈고미ᄒᆞᆫ셤
을셰고셜리도라오
니아비파연병을엇
는지라열ᄒᆞᆯ이못ᄒᆞ
여죽으니은뵈득복
으로곡읍ᄒᆞ고묘측
의셰나지아니ᄒᆞ더
라ᄒᆞᆯ는ᄌᆞᆸᄒᆞᆫ보람이
니러나향ᄒᆞᆫ배올일헛
더니두놀만의ᄒᆞᆫ가
마피므려다가무덤
압ᄒᆡ노핫더라삭망
이면스싱의무덤의
제ᄒᆞ고쥐졀은슈쉥
의묘하의쉬삼빈졸
못ᄎᆞ니라선덕임ᄌᆞ
의상애두사ᄅᆞᆷ의일
올드ᄅᆞ시고뎡홍ᄒᆞ야
뎡문ᄒᆞ고벼슬ᄒᆞ이
시다

知禮縣人尹殷保徐騭俱學於同縣知宜州事張志道一
日相謂曰人生於三事之如一況吾師無子可養乎得異
味輒饋每遇良辰必具酒饌如事父然張沒二人請廬墓
於其親親憐而聽之乃玄冠腰經居墓傍躬爨供奠尹父
嘗病卽歸奉藥衣不解帶父愈令復歸廬月餘尹感異夢
亟歸則父果以夢夕疾作未旬而死尹晨夕號哭不離喪
側旣葬廬父墳一日飄風暴起失案上香合數月有鳥啣
物飛來置塋前人就視之卽所失香合也至朔望猶奠張
墳徐終三年宣德壬子事 聞旌保騭並二命擢門拜官

詩 孔門廬墓載遺編師道千年廢不傳誰料窮鄕初學
輩種楷腰經企前賢 一體而分性本眞勞鬱爲親瘠氣
通神慈烏反哺能相感香合啣來慰棘人

三綱行實孝子圖終